

'나옹 왕사 재조명' 학계·지자체 맞손

영덕군·대각사상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정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山空兮 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蒼空兮 我以無垢) 사랑도 벗어 놓고 미음도 벗어 놓고(聊無愛而無憎兮)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如水如風而終我)"라는 노래는 드라마 주제곡 등에 사용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듣고 흥얼거린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 노래가사나 나옹 스님의 선사사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나옹 스님(1320~1376)은 인도 고승 지공 스님, 조선건국에 기여한 무학 스님과 함께 3대 화상이자 고려 공민왕과 우왕 때 왕사를 지낸 여말선초를 대표하는 선지식이다. 그동안 원효, 의상 등 신라 고승이나 조선중기 보조 국사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했지만 나옹 스님 등 여말선초 불교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나옹 스님의 고향인 경북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1월 25일 오후 2시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과 함께 '나옹 왕사 재조명 학술세미나'를 연다.

학계는 일단 지자체와 학술단체가 함께 행사를 여는 경우가 드문 가운데 회소식이라는 분위기가. 또 이번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지자체의 인문 학술연구 동향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술세미나는 1부 의식행사와 2부 학술발표, 3부 종합토론 및 질의로 나누어 진행된다. 학술

발표는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기조강연 '나옹 왕사 유업의 재조명'으로 시작된다. 황인규 교수(동국대)가 발표하는 '나옹 왕사의 생애와 행적이 문화에 미친 영향'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나옹 왕사의 생애를 재조명한다.

보광 스님(대각사상연구원장)의 '나옹 왕사의 정토사상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과 신규탁 교수(연세대)의 '나옹 왕사의 선사상' 등 2편의 논문은 나옹 스님 사상을 선과 정토로 크게 나눠 정리한다. 이재수 박사(동국대)의 '나옹 왕사 행적을 이용한 문화재 콘텐츠 개발방안'은 역사적·사상적으로 검증된 나옹 스님 사상과 업적을 어떻게 문화상품화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한다.

영덕군 임성장 과장(문화관광과)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옹 스님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은 물론 영덕군이 왕사를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임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영덕 역사와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을 잇는 '나옹 왕사 성역화 사업'을 진행해 전국적인 불교순례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말 구산선종과는 다른 임제선종을 도입해 불교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나옹 스님이 21세기에는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전국 각 사찰 '성도재일 기념 법회' 열기 가득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성불의 길로...

불기 2552년 성도절(음력 12월 8일)을 맞아 1월 15일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성도재일 법회가 봉행됐다. 성도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학)는 14일 오후 9시부터 15일 오전 4시까지 성도재일 기념 철야정진을 실시한 후 15일 오전 10시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5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철야정진에서는 108배와 <금강경> 독송 등을 통해 부처님의 참된 깨달음을 되새겼다. 15일 열린 성도재일 법회는 천수경과 거불, 108참회문 독송, 정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지 원학 스님은 "불자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 성도절 하루만이라도 마음으로 출가하고 철야정진을 하며 정진했다"며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문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도 9일부터 진행해 온 7일 참선정진과 성도재일 전야 철야정진을 회향하는 법회를 15일 법당에서 봉행하는 등, 전국의 사찰에서 성도절 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전 비구니 청림회는 15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제22회 성도절 대법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 불자화합 대축제'를 봉행했다. 이날 청림회는 자랑스런 불자상을 대인시청 전경진 불자에게 수여하고 보고고교 재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충남대학교 불교 동아리에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초청법사 해국 스님(충주 석

종사 선원장)은 "부처님께서 성도 후 삼독심(貪·瞋·癡)으로 부처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일대사 인연법을 설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며 "마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반성해 번뇌를 버리고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는 14일 성도절 특별법회에서 중앙승가대학 학장 종범 스님을 초청법사로 '성도란 무엇인가' 법문을 들었다. 저녁 7시부터 용화사 대웅전을 가득채운 500여명의 불자들에게 종범 스님은 "성도는 모든 고통과 역난을 해결하는 종범생인(宗法生)법으로 깨달은 눈을 갖는 것"이라며 "지혜와 자비원력으로 지혜와 보시, 자비를 실천하여, 가정과 이웃, 사회와 국가,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청정한 불국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 관 중무원조합 원우회(위원장 장영숙)는 14일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108배 정진을 한데 이어 15일 오전 중무 조회시간에 108배 기도정진을 봉행했다. 원우회는 성도재일을 맞아 앞으로 <우리말 금강경> 소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불교 동아리에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초청법사 해국 스님(충주 석

여수경 기자 · 해철 충청지사장 · 손범철 대구지사장



대전 비구니 청림회가 1월 15일 제22회 성도절 대법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 불자화합 대축제'를 봉행했다.

'색즉시공'이 섹시코미디 영화 제목?



특별기고

혜ungsun

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 석사과정
baryagong@naver.com

'색즉시공'이라는 섹시코미디 영화 2편이 상영된 지 한 달이 지났다. 5년전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한 불교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계는 아무런 대응도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색즉시공'은 불교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표현한 <반야심경>의 유명한 구절이다. 그런데 그것이 음란코미디영화 제목으로 사용된 것이다. 나는 이번에는 그냥 잊

을 수가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영화를 두 편 다 보았다.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1, 2편 모두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속한 장면이 이어지고 온갖 상선론 욕과 저속한 말들이 대사로 사용되었다. 불교에서 제목을 빌려다 쓴 영화 '색즉시공'은 한 마디로 불교를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영화를 보며 내가 승단에 몸담고 숨 쉬며 살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치욕스러웠다.

이런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불교계가 단호하게 대응을 했다면 2편이 나왔을까? 아무 대응도 없었기 때문에 2편까지 나온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3편, 4편이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반야심경>을 넘어 불교경전의 모든 용어나 불교의 성스러운 상징물들이 앞으로 코미디와 음란물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종교적 상징이라는 것은, 그것이 글이든 형상이든, 신자들은 이 상징으로써 그 종교가 지향하는 성스러운 의미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혹은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의 중요한 상징에 대해서는 성스러운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며,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교계는 어떠한가? 조석으로 외우는 <반야심경> 핵심구절이 음란코미디영화 제목으로 길거리 선전포스트가 나부끼는데도 교계 지도자는 물론 사부대중이 보이는 태도는 너무나 조용하다. 나는 이러한 사실이 한국불교지도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늦었지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계 지도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출가대중의 각성을 촉구한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불교학과)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성당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윤일수(문화재단위원장) · 최종석(금강대학교수) · 주명철(동방대학교수)	· 이명래(충남대 교수) · 종석스님(승가대학교수) · 최봉수(동국대학교수) · 박종(동산불교대학교수)	· 김희동(동국대학교수) · 황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전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빈야사상 · 회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압도스님(전포교원장) · 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 · 정일스님(승가대학교수)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 태원스님(승가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 김성현(동국대학교수) · 김성영(승가대학교수) · 박 (동산불교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1월 1일 ~ 2008년 1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선반은 지방거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2월 2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 이명래교수, 무진장스님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3월개강 학과 및 교수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1·2), 노자(1·2),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임재우(연세대학교), 심재동(동국대학교),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자문문화사(중국·일본·영미, 제2학(1)·2), 차도문헌, 한국의 현대차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일교수, 지은스님, 적경스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법,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전국대학교), 법인스님
불교장재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미혜교수, 최정자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요가삼밀학(2년) [지도자과정]	· 요가이론, 요가수트라, 요가생리학, 요가요법, 요가명상법, 아사나실습, 요가자기진단법, 요가운동처방법, 삼밀수인법, 삼밀무드라법, 삼밀만트라법, 만다라작법, 관정법, 밀교명상법 등	안지음 교수, 허일범 교수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선·3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3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재문화학과(정규·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정규·30명) · 요가삼밀학과(정규·30명)	·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8년 1월15일 ~ 2008년 3월 4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재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사찰음식문화학과) · 매주 일요일 오후1시30분(요가삼밀학과)	통선반은 지방거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개강일시 한문학과 : 3월 6일 (목), 다도학과 : 3월 4일 (화), 불교미술학과 : 3월 4일 (화)
불교장재문화학과 : 3월 4일 (화), 사찰음식문화학과 : 3월 5일 (수), 요가삼밀학과 : 3월 16일 (일)

